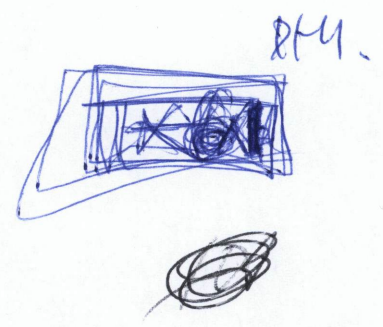


기억안 만들 회의



02/08/29 목요일 - 제 29차 집국회의

✓ 일탈 ; 기억사 알아보기.

1. 국별보고

2. 논의 안건

-총무부

* 스톱 →

~~기타사항~~ → (30)

✓ 박지영씨
만나기

- 2학기 집국회의 날짜잡기

(8/27)

-사무국

✓ 9/11

수요일 6시. 여학생회 식사

- 새로 들어온 사건

쿠쿠 / (다녀)
→ 정년.

✓ 박지영씨 ;

-매체국

후

- 총여학생회 예산자치 위원회

* 커뮤니티. yself

-일상정치국

순례 - 연고전

총여 / 여학생회. 여학생회
포스터 → 찬양만들기.

- 안티연고전

연니네

여학생신문

— 여학생 (토)

업데이트

(10시) - (8/31일 - 토)

-학술국

* 전사러자기

여성학 수업 버전업

교양수업과 연계

새터 - 비즈

-회장단 & 반성폭력팀

(다녀 / 쿠쿠)

- 여성학 연계전공

학생의
파라다
모가

기타

- 기억안 만들기 (여학생)

- 정년 (주)

- 교

한니 - 쪽 - 다녀 - 세움 - 셀 - 솔 - 이란 - 쿠쿠

새터 — 원 4시 11

새터 반성폭력 내규 upgrade! 초벌 논의용

반성폭력팀

1. 새터 반성폭력 내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이유와 배경

2-1 올해 새터를 준비하면서부터 내규가 다. 2000년에 만들어진 내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새터 문화자체를 바꾸어 내는 것에 그 목적과 의의가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내규에 대한 거부감이나 반감도 많지만 새터 내규가 만들어진 후 새터 분위기나 놀이 문화가 가시적으로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새터/놀이문화를 바꾸어 낸다는 의미가 2000년과 현재가 같을 수 없다. 또한 2000년에 시기적 급박함으로 인해 다 담아내지 못한 내용이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는 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2-2 1학기 동안 계속 이야기되어 온 단대별 내규 제정 역시 새터 내규 업그레이드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000년의 새터 내규가 현재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정이 많이 다른 단대들이 서로 공유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전체 새터 내규가 포괄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 동시에 총여가 '주는' 강제적인 규약이 아니라(실제로 이런 반발심을 많이 표출하고 있다) 단대에서 합의하여 만든 약속이라면 구성원들이 내규를 지키는 데도 훨씬 적극적일 것이며, 사례나 규약의 조항들도 단대에 맞는 현실적인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3. 내용

기본 개념

-성폭력의 개념에 대한 부연 설명

-사례들을 다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사례에 대한 부가 설명 필요->전혀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해당 사례가 왜 성폭력이 되는지에 이해가 힘들며,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경우들도 있다.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대한 설명

-2차 가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과 사례 제시

구성원의 의무

-새터 이 전에 내규를 통한 세미나 역시 새터 내규 규약 중 하나로 만들어 구성원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한다.

대책위원회의 자격과 의무

-대책위원들의 자격 명시

->대책위원들도 새터 내규나 반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는 경우들이 많다. 대책위원이 될 수 있는 단대 학생회나 총학생회, 총여학생회는 새터 이전에 반드시 대책위 구성과 해결 과정에 대한 교양을 따로 진행하도록 한다.

->과반 학생회는 새터 이전에 세미나를 반드시 할 의무를 규약으로 만든다.

하미.
8/21

복



호주제폐지

-일상정치국 2학기 계획서-

1. 화장실신문 5회분

09.05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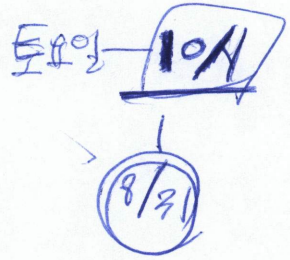
09.16 2호

09.30 3호

10.14 4호

10.28 5호

11/10



2학기에 들어서는 이렇게 다섯 호만을 내게 될 것 같은데, 2학기의 화장실신문은 홍보의 성격이 아니라, 이슈를 제시하는 성격을 띄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첫 호의 주제는 호주제폐지가 어떨까 싶고, 방학 중의 세미나 내용도 살렸으면 합니다.

2. 생리대 자판기 설치권 진행.

화장실에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이 현재 총학의 태도를 보건대, 총학과 같이 하는 것은 힘들지도 모릅니다.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의대와 생과대이며, 이는 총학과 같이 일하는 것이 여의치 않더라도 학기 시작과 함께 들어갈까 합니다.

3. 교투때 제출한 여학생휴게실 인테리어에 관한 공문내용.

여학생처에 확인을 해야 할 듯.

공문에서 요구한 인테리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열악한 문대와 이과대 여휴는 여휴만만과 함께, 혹은 14대 총여학생회에서 환경개선에 들어가야 할 듯 합니다.

총여 1학기 결산안!!

학생회비

총액: 13,282,944 = 3,482,944(이월금) + 600,000(여학생처지원금) + 9,200,000(학생회비)

행사명	비용
새터	1,375,000
여학우 새로배움터+ 여성학 학교	840,767
3.8 여성의 날	262,740
취업대란	2,107,455
바디 톡스	969,100
밥꽃양 상영	125,4600
잡지구독	161,000
홈피	1,649,000
화장실신문	642,130
물품	528,910
잡비	64,4770
떡볶이 수다	5,536,840
합계	15,972,312

준비할.

1000

남은돈: - 2,689,368(원)

장학금

총액: 7,203,600 = 3,103,600(이월금) + 4,100,000(이번장학금)

내역	금액
LT비	563,520
회식	461,010
지원금	1,455,000
내규평가단 회식비	39,000
자치단체연석회의	118,720
물값	98,000
기타비용(행사부대비용-뒤풀이)	489,950
합계	3,225,200

1000
140
40

남은돈: 3,978,400(원)

예자제

예산자치제 편성액(원): $4,232,640 = 3,232,640(\text{예자제 이월금}) + 1,000,000(14\text{대총여 배정액})$

단체	금액
두입술	1,500,000
유쾌한 girl	349,040
페미너리	312,300
연성뿌연	1,000,000
상대 여휴 자치위원회(준)	210,000
모반	285,000
꿈지락	150,000
합계	3,806,340

남은금액: 426,300(원)

* 못 받은 돈

서울대 뺏지값: 180,000

예전 밥꽃양 티켓값: 170,000

-> 350,000

* 앞으로 받을 돈

교에게 702,300원 받을 것 있음

* 미지급

연성뿌연 100만원 미지급

147 11

결론적으로 남아있는 금액

-> 1,365,332원, 그러나 그 중 100만원은 연성뿌연 돈으로 나가야 하고, 교에게 돈(702,300원)을 받아야 하므로

=> 1,067,632원

58

방금 전화드렸던 학생행동연대 한여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성폭력사건을 하나 접수받았는데..

지난 8월 3-4일 대중행동광장이라는 행사를 연대에서 했는데...
마지막날 5일 새벽 뒷풀이를 끝내고, 모두 숙소에서 잠들었을때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숙소는 학생회관 3층 푸른샘이었구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깨우더니 미안하다면서 '자는 모습이 예뻐 얼굴에 뽀뽀를 했다'라고
했답니다.

피해자는 너무 놀림기도하고, 무섭기도 하고(그때 숙소에 깨어있던 사람이 한명도 없었
다고 합니다.) 일단은 가해자를 돌려보냈다고 하며, 새벽 6-7정도에 다시 피해자를 깨
우더니 사귀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에 피해자가 저희 행사 준비팀에게 성폭력사건을 얘기했고, 해결했으면 좋겠
다고 했습니다.

가해자는 연대 기타동아리 사람이라고 확인한 정도입니다.
가해자는 저희 행사참여자는 아니었는데.....뒷풀이 도중에 기타를 빌려주게 된 계기
로..... 뒷풀이를 같이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명이 같이 뒷풀이를 했는데.....그
중 가해자 1명은 다음날 아침 동아리방에서 혼자서 자고 있던 것 까지도 확인했습니
다.

그래서 저희가 연세 총여에 제안드리는 바는

성폭력 대책위가 아직 꾸려지지 않는다는데...
저희와 공동 대책위를 꾸렸으면 하는 거입니다.
가해자 캄으로서 주체로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구체적인 부분은 같이 논의해봤으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가해자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원 확보가
좀 되어야 할 것 같구요..

피해자 진술서가 도착은 했는데..구체적이지 않아서..
다시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구안도 더 얘기해볼 생각이구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우선 운동진영하고 연세대 안에 공론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
습니다.

한번 뵈 후 자세한 얘기는 했으면 합니다.

제 연락처는 018-272-1375 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 5-7사이, 수요일 하루종일, 목요일 오전
정도에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만....

2002년 1학기 수업에 여성교육개론이란 과목을 듣게 되었다. 물론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여성'에 대한 관심 때문에 신청하게 된 것이지만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프로젝트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프로젝트는 조를 짜서 여성에 관련된 어떤 캠페인이나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그것을 학기말에 발표하는 일이었다.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가 주제선정부터 막막하던 그 일에 조원들 중 하나가 <밥꽃양> 상영추진이나 홍보를 해보자고 제의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행사를 총여학생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 조는 긴급회의에 들어갔고 밥꽃양을 직접 상영하지는 못하더라도 상영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밥꽃양에 대해 알리고 밥꽃양 상영회에 함께 참여한다면 그 나름대로 유의미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심스럽게 총여학생회의 문을 두드린 우리는 솔직히 조금은 걱정했었다. 그러나 총여학생회의 분위기는 권위적이지 않은 친숙한 분위기라 마음이 놓였다. 총여에서는 반갑게 우릴 맞아주었고, 달리님께서서는 마침 일손이 부족해서 스텝을 따로 모집할까 생각도 했었다는 얘기까지 해주었다.

그래서 상영준비 초기단계부터 우리 조는 총여학생회와 일을 같이 하게 되었다. 총여와 함께 일을 시작하면서 좋았던 점은 행사진행 등의 경험이 많은 분들과 일을 하게 되서 단계별로 일을 착착 진행시키면서 뭘 하면 좋을지 많이 배웠다는 점이다.

이런 큰 행사를 진행하는 데는 생각보다 세세한 곳에 신경 쓸 일이 많았다. 특히 관객 좌석 배정과 상영을 1회로 할 것이냐 2회로 할 것이냐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는데,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최대한 존중해주자는 배려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가 무척 힘이 들었다. 그렇지만 그만큼 많이 생각하고 많은 것을 느낀 것 같다.

또한 여성학 수업 때문에 시작한 프로젝트지만 총여와 같이 일하면서 '여성'에 대해 주체적으로 많이 생각해보고 프로젝트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총여에서 준 자료집도 많이 읽고 준비하기 위한 세미나도 하는 일련의 과정이 무척 도움이 많이 되었다.

그리고 재정적인 도움, 비록 우리가 먼저 시작해서 총여에서 지원금을 받은 행사는 아니었지만 학생회에서 같이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포스터, 티켓 제작부터 여러 군데 들어가는 제반 비용들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좋았다.

모든 여성학 과제들이 총여학생회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총여학생회라는 곳이 다가가기 힘든 곳이라는 부담스러운 느낌에서 정말 친근하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며 언제라도 내가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로 다가왔다는 점도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든 생각 중 하나였다.

앞으로도 여성학 수업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프로젝트들이나 캠페인들이 총여학생회의 지원 하에 많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방금 전화드렸던 학생행동연대 한여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성폭력사건을 하나 접수받았는데..

지난 8월 3-4일 대중행동광장이라는 행사를 연대에서 했는데...
마지막날 5일 새벽 뒷풀이를 끝내고, 모두 숙소에서 잠들었을때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숙소는 학생회관 3층 푸른샘이었구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깨우더니 미안하다면서 '자는 모습이 예뻐 얼굴에 뽀뽀를 했다'라고
했답니다.

피해자는 너무 졸립기도하고, 무섭기도 하고(그때 숙소에 깨어있던 사람이 한명도 없었
다고 합니다.) 일단은 가해자를 돌려보냈다고 하며, 새벽 6-7정도에 다시 피해자를 깨
우더니 사귀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날 아침에 피해자가 저희 행사 준비팀에게 성폭력사건을 얘기했고, 해결했으면 좋겠
다고 했습니다.

가해자는 연대 기타동아리 사람이라고 확인한 정도입니다.
가해자는 저희 행사참여자는 아니었는데.....뒷풀이 도중에 기타를 빌려주게 된 계기
로..... 뒷풀이를 같이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명이 같이 뒷풀이를 했는데.....그
중 가해자 1명은 다음날 아침 동아리방에서 혼자서 자고 있던 것 까지도 확인했습니
다.

그래서 저희가 연세 총여에 제안드리는 바는

성폭력 대책위가 아직 꾸려지지 않는다는데...
저희와 공동 대책위를 꾸렸으면 하는 거입니다.
가해자 캠프로서 주체로 참여했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구체적인 부분은 같이 논의해봤으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가해자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원 확보가
좀 되어야 할 것 같구요..

피해자 진술서가 도착은 했는데..구체적이지 않아서..
다시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구안도 더 얘기해볼 생각이구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우선 운동진영하고 연세대 안에 공론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
습니다.

한번 뵈 후 자세한 얘기는 했으면 합니다.

제 연락처는 018-272-1375 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 5-7사이, 수요일 하루종일, 목요일 오전
정도에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만....